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경리010.6677.4023/미선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67번째 이야기

하나님의 부르심

1.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후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손경민)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평안하셨나요.. 성문교회와 저희 가정은 동역자님들의 기도로 평안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늘 에너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연합여름성경학교

7월 28~29일은 “교회가 좋아요” 연합성경학교에 영아부, 유치등부 함께 참여했습니다.

고등부 나라와 집사님 한분이 보조교사로 함께 섬겨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연합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인지 아이들은 더 들뜨고 신났습니다. 찬양과 율동에 온몸을 흔들고 말씀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처음 참여한 운재와 아라는 마지막날 내일 또 하고싶다고 아쉬워했고 집에가서 엄마에게 찬양과 율동 들려주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성경학교때 배운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건축물, 하나님의 가족임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2. 나들이

곡성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들이를 갔습니다. 만발한 들꽃을 구경하고 바이크로 가는 이동기차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지루해하지 않고 모두들 기대함과 설렘이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레일바이크로 가는동안 함께갔던 꼬맹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도착후 짝을지어 레일바이크를 타는 즐거움과 시원한 바람과 꽃냄새로 모두들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레일바이크가 끝나고 난후 맛있게 점심을 먹고 어류생태관가서 체험을 하고난후 아쉬움을 뒤로한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성도님들과 함께한 나들이라서 그런지 힐링이 되었습니다. 모든일정에 안전함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양육 훈련(성경공부)

매주 오후 예배때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주중에 목사님과 각 가정으로 찾아가거나 교회에서 양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 없이 양육훈련에 참여하여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4. 선교 예배

선교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드리는 선교예배라서 그런지 성도님들이 많이 기대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과 사역나눔에 은혜를 받은 집사님과 성도님은 예배가 끝난후 선교사님 사역 영상을 몇 번 다시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무명이어도 예수님 안에 만족하고, 가난하여도 예수님안에 부요함을 얻고, 주님의 계획을 믿기에 고난중에도 견뎌내시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느낄수 있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5. 섬김

김수환 성도님 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성도님들께 식사공계를 해주셨는데 떡 케익과, 뷔페를 연상케하는 반찬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모여 축하하고 더욱 풍성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후 목사님 반찬, 교회 각종 김치를 자주 담귀 주십니다. 그분의 섬김이 참으로 값집니다. 목사님이 내려주시는 커피가 생각나서 왔다면 혼자서도 찾아오십니다. 어머니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지만, 자녀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존중해주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김*경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별 탈 없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이 엄마가 고백했습니다. 해솔이를 통해 아이 아빠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중고등학교때 만난 아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보며 교회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 또한 고백합니다.



7. 전도 이야기

올 여름에는 식혜보다 죽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혼자사시는 어르신들과 전도대상자에게 배달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교회 할머니께서 '사모님이 만든 녹두죽이 먹고싶소~' 라는 말씀에 한술 끓여서 병문안 가서 전해드리고, 그릇그릇 담아서 다른 분들께도 전해드렸습니다.

목포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단호박을 박스로 보내주셔서 몇차례 나누어 호박죽을 만들어서 어르신들께 배달했습니다. 녹두죽, 호박죽, 팥죽, 야채죽.. 그냥 보기엔 평범한죽 한그릇이지만 그 죽엔 사랑과 기도가 듬뿍 조미되었기에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죽을 만들어 도시락 배달하는 자전거 여행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노방전도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꾸준히 매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실 뜻을 생각하며,

날마다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 따르는 목사님과 제가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기도 제목

1. 코로나 이후 연합예배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오후 예배는 부서별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의 믿음이 견고해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시오.
2. 노방전도, 관계전도, 캠퍼스전도(대학교,초등학교,중학교)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도의 필요한 물품(재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3. 차량, 찬양, 반주, 교사 그리고 복음전도자로 섬겨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4. 1대1일 양육훈련(성경공부)과 그룹 성경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기도해주시시오. 또한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